

■ 지평지성 소식 ■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 오는 7월 3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8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해외투자업무의 선두를 달려온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오는 7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시아의 마지막 황금시장인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법률과 거래 관행들은 미얀마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얀마 투자를 위해서는 미얀마 법제의 특성과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투자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오던 태국이 성장가능성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전략적 역할에 주목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태국의 투자 법제와 시장 환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 로펌으로서 유일하게 미얀마와 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저희 지평지성은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사
2:00 ~ 2:20	세미나 참가 등록	
2:20 ~ 2:30	세미나 개최 인사말	사회: 김상준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2:30 ~ 3:30	제1부 미얀마 투자 법제	
	1세션 미얀마 투자 법제 개관	발표: 정 철 변호사
	2세션 미얀마 진출시 유의점과 효율적 방안	발표: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해외업무 및 미얀마팀, 태국팀 소개	
3:30 ~ 3:45	Coffee Break	
3:45 ~ 4:30	제2부 태국 투자 법제	
	1세션 태국 투자 법제 개관	발표: 정재형 변호사
	2세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태국의 지역운영본부(ROH) 설립 및 혜택	발표: 정재형 변호사
4:30 ~ 5:00	제3부 질의 응답	사회: 김상준 변호사
5:00	폐 회	

[세미나 신청하기]

-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